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31(금) ~ 2025.11.6(목)

제공일시 2025 11 14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31(금) ~ 2025.11.6(목)

제공일시 2025 11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글로벌 정책

1. EU, 중국계 MMG의 니켈 인수 제동...“핵심소재 공급망 리스크 부각”

- 중국계 광산기업 MMG의 5억달러(약 7309억원) 규모 브라질 니켈사업 인수가 유럽연합(EU) 경쟁당국의 2단계 심층 조사로 제동이 걸렸음

- 브라질산 니켈은 유럽 스테인리스강 산업의 핵심 원료로, 영국계 앵글로아메리칸이 운영하던 생산거점이 중국 국영계열로 넘어갈 경우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됐음

- EU는 니켈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소재의 전략적 의존도 증가를 주요 리스크로 보고, 공급 안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 중임

[\(임팩트온 2025.11.5\)](#)

2. 미 16개주 법무장관, MS·구글·메타에 “EU 지속가능성법 따르지 마라” 경고

- 미국의 16개 주 법무장관이 마이크로소프트·구글·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EU의 지속가능성 규제(CSRD·CSDDD) 준수를 거부하라고 촉구함

- 이는 EU가 추진 중인 ‘옴니버스 패키지’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(反)ESG 진영이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, 미국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도 백악관에 반대 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

-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안티 ESG 기조가 미-EU 간 정책 갈등으로 번지며,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

[\(임팩트온 2025.11.5\)](#)

3. 말레이 총리 “韓·호주 합작 자석공장으로 희토류 산업 육성”

-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호주 기업의 합작으로 파항주에 6억링깃(약 2119억원) 규모의 네오디뮴 자석 공장을 건설하며 희토류 산업 육성에 나섰다

- 해당 공장은 한국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링크와 호주 라이너스 레어어스가 공동 추진하며, 연간 3000톤 규모의 자석을 생산할 계획임

- 말레이시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희토류 정제·가공·제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

[\(디지털타임스 2025.11.4\)](#)

국내 정책

1. 기후부, '반도체 공정 슬러지 재활용' 연구 추진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 기획 연구에 착수했음
- 이번 연구는 CCUS(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) 기술을 활용한 슬러지 업사이클링과 포토레지스트(PR) 슬러지를 이용한 가스 열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함
-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 자원순환 구조를 확립하고, 고부가가치 소재화 및 탄소중립형 생산 공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

[\(브릿지경제 2025.11.5\)](#)

2. '원전'으로 '수소' 만든다, 로드맵 연내 발표...“정부 의지 확고”

- 정부가 원자력을 활용한 핑크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중심의 수소 생태계 조성 로드맵을 연내 확정할 계획임
-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수소경제 재도약 간담회에서 “SMR(소형모듈원자로)을 통한 수소 생산 실증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며 수소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힘
- 정부는 핑크수소와 그린수소의 병행 실증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, 관련 기술 상용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임

[\(머니투데이 2025.11.5\)](#)

3. 공정위, 中企 대상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위한 '기술보호 감시관' 위촉

-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'기술보호 감시관' 제도를 도입하고, 12명을 1차로 위촉했음
- 감시관은 원·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·유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, 위반 혐의를 공정위에 수시 제보할 예정임
-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,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임

[\(조세금융신문 2025.11.4\)](#)

글로벌 기업

1. 머스크=테슬라 공식 깨졌다...1조달러 보상안 반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

- 노르웨이 국부펀드(GPFG)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1조달러(약 1462조원)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, 운용기관인 노르웨이은행투자운용(NBIM)은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예정임
-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 부결 시 머스크의 퇴사 가능성을 경고했고, 머스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주주 설득전이 본격화되고 있음

[\(매일경제 2025.11.5\)](#)

2. “광물판 IEA 만든다”...18조달러 투자자, 글로벌 자원 거버넌스 재편 나서

- 18조달러(약 2경6312조원)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(IEA)를 모델로 한 ‘국제광물기구(IMA)’ 설립을 공식 제안함
- 글로벌 마이닝 2030 투자자 위원회는 IMA가 전 세계 광물 수요·공급 및 불법 거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

[\(임팩트온 2025.11.4\)](#)

3. 카타르에너지, 삼성물산에 연 410만 톤 CO₂ 포집 플랜트 발주

-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삼성물산에 연 41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플랜트 EPC 계약을 발주했으며,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됨
- 삼성물산은 가스 처리 공정의 CO₂ 회수부터 압축·주입·지중 저장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, 카타르는 LNG 산업을 저탄소 에너지 허브로 전환할 계획임

[\(ABC뉴스 2025.11.3\)](#)

4. GM, 전기차 속도조절...中 대항 저가 배터리 ‘韓 LMR’ 주목

- 제너럴모터스(GM)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LMR(리튬·망간리치) 배터리 중심의 저가형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
- GM은 디트로이트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으며, 중국산 LFP 배터리를 대체해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모색 중임

[\(아시아경제 2025.11.3\)](#)

국내 기업

1. LS전선, 싱가포르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 '속도'...초고압 케이블 시공 하도급 계약

- LS전선이 주도하는 싱가포르 초고압 케이블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며, 위관건설이 하도급사로 선정돼 230kV급 케이블 시공 계약을 체결했음

- 계약 규모는 2089만8000싱가포르달러(약 230억원)로,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전력청 발주 프로젝트에 LS전선이 케이블을 공급함

[\(더구루 2025.11.5\)](#)

2. SK, 베트남서 직접개발 본격화...LNG·생분해소재 '투트랙' 확장

- SK그룹이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(LNG) 발전과 생분해소재 산업을 직접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, 지분투자 중심 전략에서 전환에 나섰다

- 지금까지 베트남에 35억달러(약 5조원)를 투자한 SK는 현지 산업 개발과 연계한 신성장 사업을 강화하고, 에너지·바이오 중심의 투트랙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음

[\(ABC뉴스 2025.11.5\)](#)

3. 현대차, 싱가포르 이어 말레이시아 수소허브 모색...亞太 수소 생태계 확장

- 현대자동차그룹이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수소 생태계 거점으로 검토하며, 정부와 청정 모빌리티 및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

- 현대차는 조호르주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포함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클린 모빌리티 허브 조성을 추진하며 동남아 수소 밸류체인 확장을 가속화함

[\(더구루 2025.11.5\)](#)

4. LG에너지솔루션, 오라클에 ESS 배터리 공급한다

-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오라클에 리튬인산철(LFP) 기반 에너지저장장치(ESS)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추진 중임

- 오라클 데이터센터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수십GWh 규모의 대형 계약이 예상되며,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ESS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을 본격화함

[\(이투데이 2025.11.5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31(금) ~ 2025.11.6(목)

제공일시 2025 11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EU, 2040년 온실가스 90% 감축 합의...‘국제 탄소크레딧’ 허용으로 산업 부담 완화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들이 브뤼셀에서 15시간의 협상 끝에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% 줄이기로 합의했으며, 이번 결정으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0)에서 새로운 국가감축목표(NDC)를 공식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
- 이번 합의의 핵심은 국제 탄소크레딧(파리협정 제6조 기반) 활용을 허용한 것으로, 감축 목표의 일부를 해외 감축 실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절충안으로 작용함
- EU는 기존의 ‘회원국 내부 달성’ 원칙을 수정해 역내 85%, 해외 크레딧 5%로 구성된 구조를 채택했으며, 이는 EU가 처음으로 완전한 자력감축 원칙을 유연하게 조정한 사례로 평가됨
- 국제 탄소크레딧은 2031년부터 시범 적용이 시작되고, 이후 5년간 검증 단계를 거쳐 203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, 회원국들은 인증된 해외 프로젝트를 구매해 일부 감축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됨
- 협상 과정에서 헝가리·슬로바키아·폴란드는 산업비용 상승과 에너지 가격 인상 우려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고, 불가리아와 벨기에는 기권했으며, 오스트리아는 조건부 찬성을 통해 절충에 참여함
- 프랑스는 ‘기술 중립성’ 조항을 삽입해 원자력 발전을 공식 감축수단으로 인정받았으며, 이는 프랑스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사안으로 향후 EU 내 원전 정책 재평가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
- 회원국들은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 강화와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확대 일정 조정에도 합의했으며, 운송 및 난방 연료 부문 ETS 적용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해 산업 부담을 완화함
- 에너지트레이딩업체 머큐리아의 엔리크 아르데리우 이사는 이번 합의를 “유럽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조정”으로 평가했으며, 에너지엑스펙츠의 얀 올센 책임자는 “유럽의회가 기후보다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결정”이라고 분석함
-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경기 둔화와 탈산업화 우려 속에서 기후 목표의 속도를 조정하는 신호로 해석하며, EU가 비용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음
- EU는 6일 기준 회원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66.3~72.5% 감축 수준의 중간 목표(NDC 업데이트안)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, 이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세부 조율을 거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

[\(임팩트우 2025.11.6\)](#)